<캡스톤 디자인-연구계획서>

팀원 : 김예린, 조정빈, 최지웅, 홍승연

1.연구 주제: 제주도의 코로나 19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개폐업의 상관관계 분석

2-1.연구의 필요성

긴급재난지원금 관련 1차 조사(2020년 4월 1일)에서는 '찬성한다' 58.3%, '반대한다' 37.0%로 찬성 의견이 다수였고 2차 조사(2020년 9월 7일)에서도 '찬성한다'라는 응답이 60.3%, '반대한다' 33.3%였다. 반면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권역별로 응답이 갈렸다. 광주·전라(찬성 74.1% vs. 반대 25.9%)와 인천·경기(63.1% vs. 33.6%), 대구·경북(56.4% vs. 40.4%)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'찬성한다'라는 응답이 많았고 그와 반대로 부산·울산·경남(50.7% vs 46.0%)과 서울(43.9% vs. 49.5%), 대전·세종·충청(43.0% vs 50.0%)에서는 찬반 응답이 팽팽하게 나타났다.

이와 같이 재난지원금이 지급될수록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생겼다.

2-2.연구의 목적

재난지원금이 소비로 전환되는 효과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업종별 개폐율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..

3.연구방법

다중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한다.

데이터로는

1)국토연구원에서 제공하는’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\_상가(상권)정보\_제주\_20201231

’(이하 제주도 재난지원금 사용처)과

2)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제주도 지역 개폐업률 데이터(이하 개폐업률 데이터)를 활용한다.

독립변수로는 제주도 재난 지원금 사용처의 열 데이터 (소상공인구분,업종명, 시간대, 총사용금액, 재난지원금 사용금액, 총 이용건, 총 재난지원금 이용건수)를 사용한다. 종속변수로는 개폐업률 데이터의 업종별 개폐업 여부를 사용한다.

선형회귀 방법으로는 일반 선형회귀를 우선 사용한다.

예측값과 실제 값의 RSS(Residual Sum of Squares)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회귀계수를 최적화한다.

다음으로, 릿지, 라쏘, 엘라스틱, 로지스틱과 같은 다양한 회귀 분석 모델들도 시도해본다.

4.기대되는 결과 및 의의

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업종별 개폐업률의 변화를 확인하여 소상공업 전반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알아본다.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긴급재난 시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방안인지 확인한다.

더 나아가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승수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,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 시행의 실효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.

5.참고문헌

News1, 2020년 11월 25일 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129262

공공데이터 포털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\_상가(상권)정보\_제주\_202012